

북한 내부 정세 평가와 2014년 하반기 주요 관찰 사항

박 형 중 (북한연구센터 소장)

Online Series CO 14-08

1. 장성택 숙청 이후 내부 정세

2014년 상반기는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장성택 숙청 여파를 관리하는 시기였다. 5월 최용해를 총정치국장에서 해임하고 황병서를 새로 임명한 것으로 장성택 숙청 여파 관리는 일단락되었다.

또한 장성택 몰락에 대신하는 새로운 주류가 본격적으로 득세하는 시기였다. 새로운 주류는 4대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부 그리고 제2경제(군수경제)이다. 특히 신주류의 핵심은 2000년대 초 김정은의 친모인 고영희와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이제강과 협력하여 권력 세습 추진에 협력하던 인물들이다. 대표적으로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리고 이번에 총정치국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부장(추정)으로 임명된 황병서이다. 4대 세력 이외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30)의 여동생인 김여정(27세)이다. 그는 중앙당 부부장의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북한 내부 정세의 일련의 특징을 보자. 먼저 젊은 지도자의 자아도취, 자만감, 문제이해 능력부족, 즉흥성과 변덕성 등이 눈길을 끈다. 이는 특히 김정은이 군부를 다루는 데서 나타났다. 군부 고위장령의 급작스런 강등과 고속 승진 등 김정은과 신생 군부 상층 간에 관계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공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개최 등에서는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병정놀이식 태도도 등장했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은 군부의 경제활동, 군대 훈련과 후생에 대단히 배려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아울러 새로운 권력 주류 내부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최용해의 갑작스런 좌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과 하부 간부 알력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의 실각, 관련하여 이영길 총참모장의 실각설, 그리고 2013년 5월 총참모장에서 해임되었던 현영철을 2014년 6월 인민무력부장으로 재기용한 것 등이 그러한 징후이다.

2. 대내 정세 관련 향후 주요 관찰 사항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주목하여 그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신주류의 특징

장성택 숙청 이후 등장한 신주류는 그들의 독특한 특성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 김경희 그리고 최용해는 대규모의 돈벌이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제를 해도 경제에 크게 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법과 수준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주류의 핵심은 조직지도부와 국가보위부와 같은 공안 계통, 비교적 젊은 야전 출신 소장 군부, 그리고 김정은 가계의 연소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은 정치공안과 작전 능력 증강 이외에는 국가운영 역량이나 소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 김정은의 군부 의존 심화

장성택을 숙청한 이후, 김정은은 군부에 더욱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2014년 들어 김정은과 관련한 군부 및 군비 관련 현지도 및 행사가 증가했다. 각종 명목으로 군부에 경제 이권 사업 몰아주기, 군대의 훈련 및 응전 태세 강화 독려, 경제건설사업 독려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재래식 무기 증강 및 핵·미사일 전력 증가 활동, 과학기술 발전 독려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 김정은과 군부 상층 간의 관계의 불안정 가능성

김정은과 군부 상층 간 관계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2014년 상반기까지 군부 장령 주요 직책의 잦은 교체, 주요 장령의 신분상 불안정성, 주요 지휘관에 대한 김정은의 병정놀이식 태도, 군사작전에 대한 김정은의 비전문가적 간섭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면중복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신주류 내부의 권력 및 이권 갈등

신주류 간에 권력 및 이권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공안 권력을 장악했으나, 마땅히 기관 차원의 돈벌이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이 이권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히 군부의) 기득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직지도부 등 주요 당기관은 이권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장성택의 경우 권력 확대와 이권 확대가 동반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군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정은이 주로 군부 주관 경제 및 이권 사업을 방문하고 있는바, 군부의 경제이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경제정책의 추이

현재 북한의 6·28 조치는 진행 중이며, 시장 방임 및 활용 정책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 및 공업 생산에서 약간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 대한 단속은 최근에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각 도 차원의 경제사업 자율성도 신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2012~2014년 6월(현재)까지 쌀값과 환율을 하향 안정시켰다. 이는 북한 경제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이다. 국가적 경제정책은 통상적인 농업 생산 유지 노력, 김정은 치적 과시용 건설, 최소 경제 인프라 유지(전력 생산 등), 군비 증강 및 대량살상 무기 증강을 위한 인프라 유지, 특권층 생활 보장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적 생산 증대 및 민생 증진을 도모하는 경제 조치 및 반부패, 규제철폐, 반독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상상력이나 추진력도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외화벌이 및 대외경제관계의 다변화

외화벌이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북한은 외화벌이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는지가 관측 포인트가 된다. 북한 수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석탄 수출가격이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북한은 광물 수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외화벌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특히 관광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국경 도시들에 대한 관광객 유치 사업이 활발해졌으며, 마식령-원산 지구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3년 추진되었던 지방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또한 2013년에 중국으로 노동자 수출이 활발했으나 2014년에는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재개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을 격렬히 비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0년 5·24 조치를 통해 남북경협을 중단했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으로부터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 외화벌이 원천 및 대외경제 관계의 다변화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는가, 또는 북한이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가를 두고 볼 일이다.

■ 내부 공안 통치의 강화

최근 북한은 내부 공안 조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해 왔다.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로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통제가 현저히 강화되었다. 아울러 2011~2012년간 북중 국경 전역에 걸쳐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2012~2013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숫자는 반으로 줄었다. 2012년과 2013년 전반기까지 내부통제를 위한 조치가 뜸하였다. 2013년 하반기부터 내부통제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 말 장성택 숙청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동안 영상물, 외부통화, 기독교, 한국 상품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의 강도도 한층 높아졌다. 대내 통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장성택 숙청과 함께 내부 사법 및 경찰 공안을 장악하던 당행정부가 몰락했다. 이후 선전선동부 중심의 사상공안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사회통제는 점차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3년 말 시점에서 2백 만을 넘어섰다. 북한은 2013~2014년 동안 국경지역에 대한 관광 개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증가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적 변화가 북한 내부 정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 4차 핵실험 실행의 경우 외부 압박 증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것이 내부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2차, 3차 핵실험과 대남 군사 긴장 고조 등 강압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하고자 했다. 북한의 내부 정치 관계 및 경제 여건을 보면, 당분간 이 노선을 추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디어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에 대한 대대적 압박 공세를 가하는 경우, 북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 도발을 증가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핵무기 사용 협박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대응압박을 성공적으로 펼치자면, 지금부터 군사태세와 주민 동원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이 현지도를 통해 움직이는 동선의 의미인지도 모른다. 물론 4차 핵실험 감행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징벌 조치는 북한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